

재한 중국동포의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화 근

손 은 정†

계명대학교 / 석사졸업

계명대학교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동포의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상의 중국동포 320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포함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한 중국동포들의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재한 중국동포,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 이 논문은 김화근(2023)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한 중국동포의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손은정,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Tel : 053-580-5402, E-mail : ejsohn@km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992년 한중 국교가 체결되면서 많은 중국 동포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다(서정경, 2014). 2022년 9월 현재 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 국적 동포의 수는 783,404명이고, 그중 중국동포의 수는 618,703명으로 전체 외국국적동포수의 79%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2). 여기서 중국동포라고 함은 한국의 혈통을 가졌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를 말한다. 중국에서 동포들은 56개 민족 중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여 조선족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리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 조선족’, ‘중국 교포’, ‘한국계 중국인’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외동포 중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라는 의미에서 중국동포라고 칭하였다.

중국동포들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정치·사회 체제하에서 중국의 교육지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관계 등 모든 면에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식 이념과 사고방식을 몸에 익혀 왔다. 따라서 한민족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같은 문화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식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회체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변화와 차이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새로운 이주민이 되었다(남근우, 2012). 중국동포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동포들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여 년 전 김소정(1996)의 연구에서는 한국 입국 후 중국동포들의 삶의 만족도가 한국 입국 전 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한 중국동포의 생활 형태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 수준은 7점 척도에서 평균 3.3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최덕경, 2001).

재한 중국동포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부분 재한 중국인을 민족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김병준, 김준경, 2018; 김지현, 김보미, 2017; 유효초 등, 2018; 진사, 최인수, 2022), 한족과 조선족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재한 중국인을 민족별로 구분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한 중국 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서 조선족은 생활환경 적응, 직장환경 적응, 심리적 적응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도출된데 반해 한족은 세 가지 차원과 함께 의사소통 적응이라는 차원이 추가되어 도출되었다(고경화 등, 2016). 또한, 조선족 유학생은 한족 유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나인 소망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하창순, 선혜연, 2010), 조선족 유학생은 동화라는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던 반면, 한족 유학생은 통합이라는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다(김현옥 등, 2011).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이라고도 불리는 중국동포는 문화적응 과정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있어서 한족과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나타내고 있어, 중국동포를 중국의 다른 민족과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동포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나(김재우, 2005; 김현옥 등, 2011; 남순현, 2021; 유효초 등, 2018; 진사, 최인수, 2022; 하정희, 2008; 하창순, 선혜연, 2010),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한국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경화 등, 2016; 김명선, 2014). 중국동포들이

이주생활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동포의 삶의 질을 살펴본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문화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재한 외국 국적 동포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한국사회와 문화적 적응 과정과 삶의 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동포들이 변화된 고국사회와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한 사회·생활 적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문화적응의 시각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지표이다(Baker & MacDonald, 2013). Diener 외(1985)는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에 의해 주관적으로 내린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이주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의 현지 생활 적응 정도와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감, 사회문화적 수용감, 사회적 스트레스 등과 함께 이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반영한다(Amit, 2010). 특히 해외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차별감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최연희, 이현승, 2016),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김대명, 2016). 또한, 지각된 차별감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 2018; 진은영, 2015). 해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은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동포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돋는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재한 중국동포들은 차별받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한국생활에서의 가장 큰 불만으로 자신들을 해외동포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60.3%), 그로 인하여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다음으로 직장에서 임금, 작업시간, 산재 처리, 보상 등과 같은 경제적 면에서의 차별을 들었다(최덕경, 2001). 심지어 김재우(2005)와 장혁심(2005)의 연구에서는 중국동포가 같은 중국에서 온 한족보다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높음을 보고했다. 중국동포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문제들은 민족적 차별이나 경제적 차별을 포함한 지각된 차별감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차별감이란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낮은 지위로 인해 자신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개인이 속한 민족 집단으로 말미암아 받는 차별적 대우 역시도 지각된 차별감으로 볼 수 있다(Mirage, 1994; Sanchez & Brock, 1996). Mirage(1994)는 개인이 실제로 차별을 받았는지 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차별감을 느끼는지에 초점을 두고 지각된 차별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지각된 차별감은 여러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김영화, 2017),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이 밝혀졌다(김유균 외, 2015; 신성자, 미칠 도칠오통도람, 2012; 이민아, 2010). 국외의 연구에서도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밝혔고(Safi, 2010),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지각된 차별감 역시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Tran & Sangalang, 2016).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다(김대명, 2016). Berry(1997)는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정체감의 혼란과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그 과정에는 정신건강 문제(불안, 우울증), 소외감과 심신증상 수준의 고조, 정체성 혼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Berry et al., 1987). 외국인 이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겪게 되는 차별, 정체성 혼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Kim, 2005). 새로운 문화의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

레스는 이주민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소외감 등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Williams & Berry, 1991).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은 문화적응의 시간을 충분히 거치기도 전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방적인 한국 문화적용을 강요받음으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건강에도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김보미, 2017; 이정환, 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7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삶의 질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준, 김준경, 2018). 중국동포 근로자들도 향수병, 사회적 지지 부족, 주위의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 최승아, 2017; 이정환, 2016). 라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증상이 높아졌다(Maldonado et al., 2018).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신이린, 2014), 미국 무슬림 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ineo et al., 2021), 라틴계 미국인들에게서도 차별 경험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하여 심리적 고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orresl et al., 2012).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면 지각된

차별감은 한국 사람들(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 연구하였으며,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 우울,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지 외, 2016; 신이린, 2014; Tineo et al., 2021; Torres et al., 2012).

이와 같이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신이린, 2014; Tineo et al., 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우울과 불안이 높아진다는(김범준, 김준경, 2018; Maldonado et al., 2018)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이주국에서 다양한 문화적응의 문제를 안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Berry 등(1987)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문화적응 과정에 참여하는 그룹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문화적응 과정이 때로는 사람들의 삶의 기회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활적응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모국문화 정체성과 이주국문화 정체성의 균형 잡힌 조합이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을 촉진시켰고(Phinney et al., 2001), 높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중문화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David et al., 2009).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Bicultural Self-Efficacy)이란 개인이 모국문화와 이주국문화 두 문화 속에서 적응적으로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사회의 상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이다(LaFromboise et al., 1993).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양쪽 문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고, 이중문화자가 두 문화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LaFromboise et al., 1993; Omizo et al., 2008)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이중문화자는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심리적으로 더욱 건강하였다(David et al., 2009). 특히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소수민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나타났다(Wei et al., 2010).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인식 정도가 높으면 정신건강 수준이 좋아졌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차별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살펴보지 못했으며,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측한다는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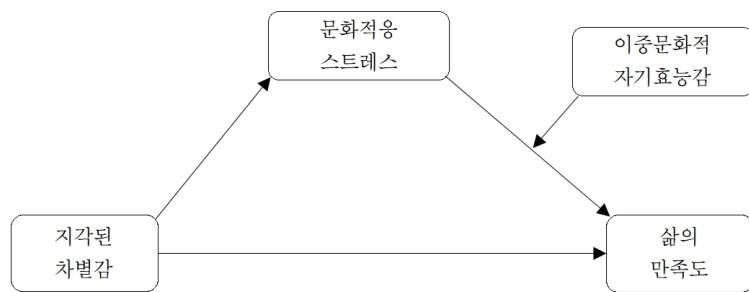


그림 1.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 모형

스트레스 간을 조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나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중국동포들의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역기능적 영향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할 것인가?

셋째,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만 17세 이상 성인 중국동포 320명을 대상으로 전국 범위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가 능통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설문지의 문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설문지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국 언어로 만들어졌다. 또한, 중국동포 유학생은 한국에서 대부분 유학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는 시간적 한계와 활동 범위가 주로 학교라는 공간적 제한성, 그 외에도 대부분이 부모들이 제공하는 학비를 받고 생활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국동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모집 방법은 지인을 통한 눈덩이 표집 방법과 일부 중국동포 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

사에 참여한 320명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나머지 29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49.66세($SD=10.80$, 범위: 17-83세)였고, 성별은 남자 120명(40.8%), 여자 174명(59.2%)이었다. 연령은 20대 11명(3.7%), 30대 50명(17.0%), 40대 56명(19.0%), 50대 144명(49.1%), 60대 이상 33명(11.2%)이었다. 비자 종류는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 82명(27.9%), 영주권(F5) 소지자 92명(31.3%), 동포방문 비자(C-3-8) 소지자 4명(1.3%), 거주자격 비자(F2) 소지자 9명(3.1%), 한국 귀화자 81명(27.6%), 기타 비자 소지자 26명(8.8%)이었다. 직업 종류는 건설업 종사자 54명(18.4%), 서비스업 종사자 92명(31.3%), 전문기술직 12명(4.1%), 사무직 15명(5.1%), 제조업 23명(7.8%), 자영업자 31명(10.5%),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10명(3.4%), 기타 57명(19.4%)이었다. 한국 체류 기간은 5년 미만이 31명(10.5%), 5~10년 사이 87명(29.6%), 11~15년 사이 54명(18.4%), 16~20년 사이 84명(28.6%), 20년 이상 38명(12.9%)이었다. 미래 장기체류 희망국에서 중국을 선택한 참가자가 143명(48.6%), 한국을 선택한 참가자가 151명(51.4%)이었고, 현재 한국에서 중국동포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대답한 참가자가 160명(54.4%),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참가자가 134명(45.6%)이었다.

측정 도구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차별감 척도는 Williams(1997, 1999)가 개발한 Williams Major and Everyday Discrimination Questions 척도를 김명선(2014)이 사용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척도(Everyday

Discrimination Questions)를 사용하였다.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한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례한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김영화(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6, 백근영, 김애란(2020)의 연구에서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재한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ASS)를 이승종(1995)이 번안한 것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ASS는 지각된 차별감(8문항), 향수병(4문항, 예시: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두려움(4문항, 예시: 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이사를하게 된다), 지각된 미워함(5문항, 예시: 한국 사람들은 말로 나를 미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화충격(3문항, 예시: 나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적응 하느라 힘들다), 죄책감(2문항, 예시: 나는 나의 가족(또는 친구)을 뒤로하고 한국에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과 기타 10문항(의사소통 문제,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등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척도 중 하위문항인 지각된 차별감과 관련된 8문항을 삭제하고 사용하였다. 이승종(1995)의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김정호(2007)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항상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예시: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주관적 행복(예시: 대부분의 내 주변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긍정·부정 정서(예시: 친밀감을 자주 느낍니까? 우울감을 자주 느낍니까?)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영화(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1이었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David 등(2009)이 개발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BSES)를 이안나(201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안나와 임성문(2015)의 연구에서는 캐나다 거주 한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캐나다’를 ‘한국’으로, ‘한국’을 ‘중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9점(매우 그렇다)까지의 9점 Likert 척도로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모두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David 등(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4

이었고, 이안나와 임성문(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7.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참가자들에게서 측정된 주요 변인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SPSS PROCESS Macro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모형, 조절효과 모형,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및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의 평균 점수와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의 전체 평균 점수는 2.56점(총점 5점, $SD=.8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전

체 평균 점수는 2.65점(총점 5점, $SD=.70$),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는 향수병 2.82점($SD=.73$), 기타(불신, 사회적 고립감, 열등감 등) 2.78점($SD=.73$), 지각된 미워함 2.68점($SD=.83$), 문화적 충격 2.51점($SD=.82$), 두려움 2.37점($SD=.80$), 죄책감 2.29점($SD=.89$) 순 이었다. 그 외 삶의 만족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4.62 점(총점 7점, $SD=.88$) 이었고 하위 요인의 점수는 주관적 만족도 4.80점($SD=1.06$), 긍정, 부정 4.67점($SD=.95$), 삶의 만족도 4.21점($SD=1.19$) 순이었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

표 1. 주요 변인 및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 ($N=294$)

주요 변인 및 하위요인	<i>M</i>	<i>SD</i>
지각된 차별감	2.56	.81
향수병	2.82	.73
지각된 미워함	2.68	.83
두려움	2.37	.80
문화적 충격	2.51	.82
죄책감	2.29	.89
기타	2.78	.73
전체 평균 점수	2.65	.70
삶의 만족도	4.21	1.19
주관적 만족도	4.80	1.06
긍정, 부정 정서	4.67	.95
전체 평균 점수	4.62	.88
사회 안전성	5.90	1.36
의사소통 능력	6.37	1.50
긍정적 태도	6.38	1.39
문화신념, 가치, 지식	6.05	1.32
역할 수행	6.46	1.34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6.27	1.29
전체 평균 점수	6.19	1.24

균 점수는 6.19점(총점 9점, $SD=1.24$)으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수준을 보였다. 하위 요인의 점수는 사회 안전성이 5.90 점 ($SD=1.36$)으로 가장 낮았으나 ‘보통이다’보다 높았고, 나머지 하위 요인들의 점수는 6.05~6.46점 사이로 ‘약간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보여 모두 보통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의 왜도는 2미만, 첨도는 7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et al., 1996).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변수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r=.74$,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삶의 만족도($r=-.43$, $p<.001$) 및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r=-.37$,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r=-.46$, $p<.001$),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r=-.37$,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r=.68$, $p<.001$)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 및 기타 변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은 장기체류 희망국 ($t=6.18$, $p<.001$)과 거주형태($t=2.28$, $p<.05$)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장기체류 희망국 ($t=7.73$, $p<.001$)에서, 삶의 만족도는 장기체류 희망국($t=-.51$, $p<.001$)과 거주 형태($t=-2.41$, $p<.05$)에서, 그리고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294$)

구 분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74***			
삶의 만족도	-.43***	-.46***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37***	-.37***	.68***	
평 균	2.56	2.65	4.62	6.19
표준편차	0.81	0.70	0.88	1.24
왜 도	0.05	0.03	0.01	0.18
첨 도	-0.31	-0.06	0.92	0.03

주. *** $p<.001$.

장기체류 희망국($t=-.514, p<.001$)과 거주 형태($t=-4.0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령 및 체류기간과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각된 차별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연령($r=.12, p<.05; r=.19, p<.01$)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체류기간($r=-.15, p<.05$)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장기 체류 희망국과 거주 형태, 그리고 주요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령과 체류기간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 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Hayes (2013)가 제안한 바에 따라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장기체류 희망국, 거주 형태, 연령, 체류

기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α)경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의 관계, (b)경로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 (c)경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만 있을 때 둘 사이의 관계, (c')경로는 매개변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한다. 우선 매개변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c=-.41, p<.001$) 설명량은 24.71%였다($F(6, 287)=15.70, p<.001$). 이는 지각된 차별감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차별감은 매개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alpha=.59, p<.001$), 이는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38, p<.001$).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

표 3.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N=294$)

예측변인	종속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종속변인: 삶의 만족도				
	B	SE	t	B	SE	t		
지각된 차별감	-	-	-	c	.41	.06	-6.73***	
지각된 차별감	α	.59	.03	16.81***	c'	-.19	.08	-2.26*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b	-.38	.10	-3.74***	
$R^2=.59$				$R^2=.25$				
$F(5, 288)=84.39, p<.001$				$F(6, 287)=15.70, p<.001$				
매개변인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문화적응 스트레스	-.21	.07	-.34	-.08				

주.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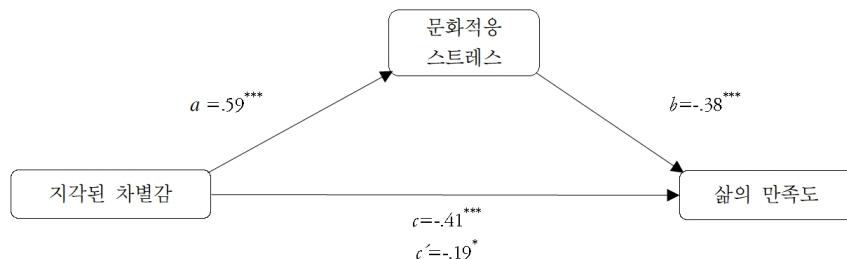


그림 2.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나($c = -.19$, $p < .05$), 그 크기가 $-.41$ 에서 $-.19$ 로 감소하였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간접효과 계수는 $-.21$ 이었으며, 95% 신뢰구간 내에서 간접효과 계수 하한 값 $-.34$ 와 상한 값 $-.08$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였으며, 장기체류 희망국, 거주 형태, 연령, 체류기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 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주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31$, $p < .001$).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주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의했는데 ($B = .43$, $p < .001$) 이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표 4.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N=294$)

예측변인	<i>B</i>	SE	<i>t</i>	95% 신뢰구간	
				LLCI	ULCI
문화적응 스트레스(<i>a</i>)	-.31	.06	-5.13***	-.43	-.19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i>b</i>)	.43	.03	13.08***	.37	.49
상호작용(<i>a</i> x <i>b</i>)	.09	.04	2.38*	.02	.16

주. * $p < .05$, *** $p < .001$.

주.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의미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항도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B=.09$, $p<.05$).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세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평균값과 평균에서 $\pm 1SD$ 수준으로 나누어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정선희, 서동기, 2016) 상호작용 효과가 세 수준 ($M-1SD$, M , $M+1SD$)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조건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3을 보면 문화적응 스트레

표 5.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N=294$)

	Effect	SE	<i>t</i>	95% 신뢰구간		
				LLCI	ULCI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1SD	.42	.08	-5.30***	-.57	-.26
	Mean	.31	.06	-5.13***	-.43	-.19
	+1SD	.20	.07	-2.71**	-.34	-.05

주. ** $p<.01$, *** $p<.001$.

주.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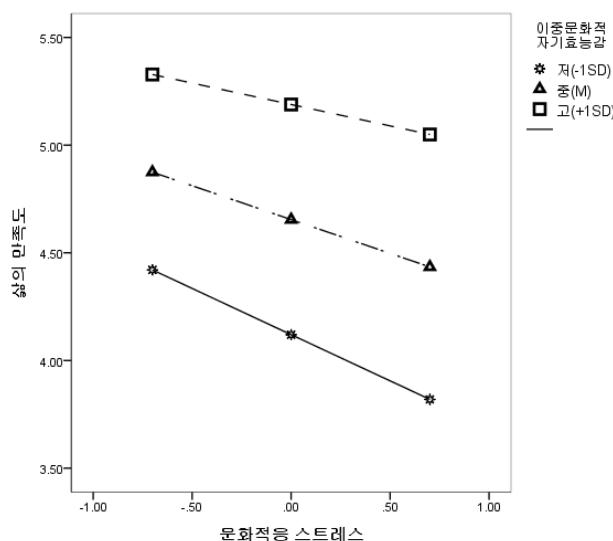


그림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스 수준이 높으면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 때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가장 낮아졌으며,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수준의 감소폭이 점차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Preacher 등(2007)이 제시한 바에 따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 하였고, 조절 모형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된 차별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걸쳐 삶의 만족도로 가는 매개 경로에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을 때 조절역할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PROCESS 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장기체류 희망국, 거주 형태, 연령, 체류기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

표 6.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N=294$)

변 인	결과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b	SE	t	LLCI	ULCI
지각된 차별감(a)	.59	.03	16.81***	.52	.65
결과변인: 삶의 만족도					
변 인	b	SE	t	LLCI	ULCI
지각된 차별감(c')	-.06	.07	-.90	-.20	.07
문화적응 스트레스($b1$)	-.26	.08	-3.18**	-.42	-.10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b2$)	.42	.03	12.81***	.36	.49
상호 작용 항($b3$)	.09	.04	2.32*	.01	.16
조절변인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22	.07	-.35	-.08	
Mean	-.15	.06	-.27	-.04	
+1SD	-.09	.06	-.20	.02	

주. * $p<.05$, ** $p<.01$, *** $p<.001$.

주.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 값.

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B=.59$, $p<.001$)을 미쳤으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 효과는 ($B=-.06$, $p>.05$) 유의미하지 않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유의했고 ($B=-.26$, $p<.01$),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42$,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09$, $p<.05$). 이를 통해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 간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본 10,000개, 신뢰구간 95%로 지정하여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평균값과 평균값의 상하 1표준편차 ($M\pm1SD$) 수준으로 나누어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

$-1SD$ 값과 평균값 두 수준에서 95%신뢰구간 [CI]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간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22$ 와 $-.15$ 였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평균 및 평균보다 $1SD$ 낮을 때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그림 4와 같이 조절된 매개 모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_1=-.26$, $p<.01$)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b_2=.42$,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만족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_3=.09$, $p<.05$).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차별감이 높아지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아지는데,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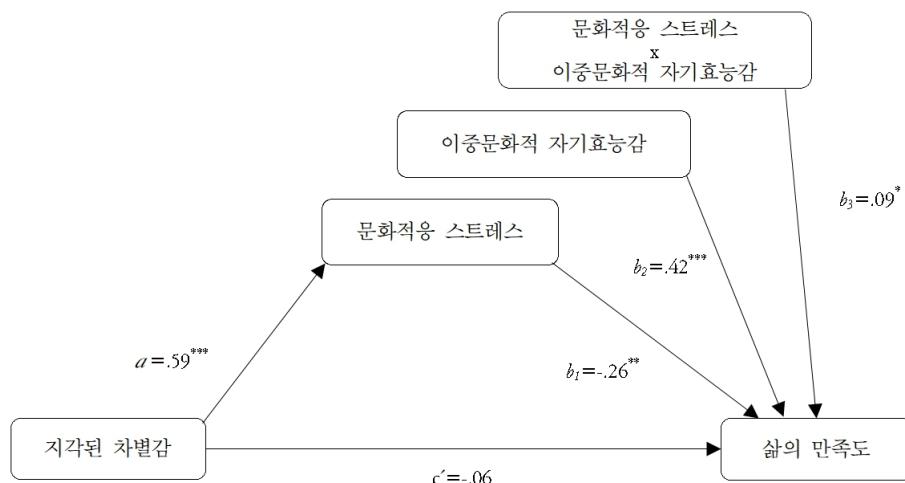


그림 4.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동포의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차별감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이정환, 2016;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최연희, 이현승, 2016; Berry & Hou, 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신이린, 2014; 이민지 등, 2016)과 일치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생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김범준, 김준경, 2018; 남부현, 최석규, 2021; 남순현, 2021; 문유미, 2020; 민기, 박철민,

2019; 유승희, 2020; Park, 2021)을 지지한다. 또한 재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신이린, 2014)와 라틴계 미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리적 고통을 유의미하게 가중시켰다는 연구 결과(Torres et al.,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동포들도 다른 해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지각된 차별감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감소하여,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Bandura, 2001), 소수민족 집단원들의 소수민족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완화했다는 선행 연구(Wei et al., 2010)를 지지한다. 또한 한국 내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은주, 201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중국동포들이 다른 해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중문화적 자기효

능감을 잘 발달시키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평균보다 1SD 낮거나 같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고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평균보다 1SD 높을 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평균이하인 경우에는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지각된 차별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차별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그 것으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고, 어려운 환경에서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며, 역경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andura, 2001; Miller et al., 2011)는 결과를 지지하며, Wei 등(2010)이 미국 소수민족 집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집단원들의 소수민족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다문화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중국동포를 재한 외국인 혹은 재한 중국인 속에 포함시켜 연구함으로써 재한 중국동포들만의 문화적응의 기제를 살펴보기 어려웠다(김범준, 김준경, 2018; 김지현, 김보미, 2017; 유효초 등, 2018; 진사, 최인수, 2022).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동포를 다른 재한 외국인이나 재한 중국인과는 분리하여 재한 중국동포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동포들은 다른 해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차별감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고,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족에게 나타났던 의사소통 적응이라는 차원의 문화적응은 중국동포가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환경 적응, 직장환경 적응, 심리적 적응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는 한족과 유사한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한다는 고경화 등(201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국동포가 한국과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적다하더라도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새로운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해외 이주민이며, 해외 이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던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적 자기효

능감이 동일하게 중국동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도 다른 해외 이주민과 같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위해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으나 이러한 심리학적 변인들을 한 모델에 통합하여 진행한 연구는 없었으며, 더욱이 중국동포들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델을 입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Berry 등(2016)은 문화적응 방식에서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유문화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새로운 이주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될 때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한다고 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이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자본이 부족하여 두 문화로부터 분리당할 때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 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곽금주(2008)는 양쪽 사회 모두에 적절한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문화적응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며, 양쪽 사회 모두를 멀리하는 주변화가 가장 부적응적인 문화적응 형태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동포에게서도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

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동포를 위한 상담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차별을 지각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지각된 차별감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동포들의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장면에서는 중국동포들이 한국과 중국의 두 문화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두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접한 한국 사회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중국에서 익혔던 몸에 밴 공동체 의식과 화합의 경험들을 잘 발굴함으로써 중국문화의 장점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획단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주자들의 문화적응 형태는 체류 기간에 따라 초기에는 동화방식이 높다가 체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통합방식으로 변화하는 U 형태를 겪기도 한다(서선자, 금명자, 2012). 이러한 문화적응 형태의 변화는 지각되는 차별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상이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 두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체류 전반에 걸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았을 때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대상자들이 89.5%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초기 대상자들 또는 체류 기간이 보다 짧은 대상자들에게 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입국 후 1~2년을 중심으로 최저치를 보이고(김소정, 1996),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김범준, 김준경, 2018).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초기 이주자들의 특성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척도가 순수 해외 이주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이주국과 동일한 협통을 가진 해외 동포들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응답하는데 있어서 애매한 문항들이 있었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해외 동포들은 한국에 오기 전 이미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 문화와 거주지의 문화라는 이중문화 적응의 과정을 거쳐 왔으므로 순수 이민자와는 다른 속성을 가진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나라로 다시 돌아온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관련 요인이 다른 해외 이주민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해외 이주민을 중국동포와 비교함으로써 중국동포와 다른 해외 이주민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한 외국인 동포의 79%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문화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을 활용할 것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다문화상담 실제에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 고경화, 윤정미, 이순묵, 이빛나 (2016). 재한 중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 척도 개발 및 조선족과 한족 간 상이한 내적구조 탐색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2), 327-365.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26.
- 김대명 (201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4), 89-100.
- 김명선 (2014). 재한 중국인 노동자의 지각된 차별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범준, 김준경 (2018).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28), 57-90.
- 김소정 (1996).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6(1), 188-220.
- 김안나, 최승아 (2017).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학력 미스 매치, 차별경험,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2), 331-357.
- 김영화 (2017). 다문화 성인의 지각된 차별감 문화적 정체감, 한국사회 적응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재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심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보건사회 연구*, 35(3), 421-452.
- 김은주 (2018).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 방식이 문화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 상태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김지현, 김보미 (2017).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 연구*, 15(8), 277-287.
- 김현옥, 조은영, 박갑제, 임성문 (2011).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18.
- 남근우 (2012). 한민족(韓民族)의 준-종족화(準種族化)와 문화 분절화: 김일성민족, 중국 조선족, 자이니치 사회의 비교연구. *국제 정치연구*, 15(1), 233-255.
- 남부현, 최석규 (2021).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연구: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문화교류연구)*, 10(6), 227-257.
-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 문유미 (2020). 동아시아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직장불안 심리상태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일본문화연구*, 1(74), 45-65.
- 민기, 박철민 (2019). 지역사회 특성이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문사회* 21, 10(1), 1107-1120.
- 백근영, 김애란 (2020). 재한 중국 여자 유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615-1646.
- 법무부 (2022). 법무부 출입국 외국정책본부 통계월보(9월호).
- 서선자, 금명자 (2012). 재한 일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인간이해*, 33(1), 35-47.
- 서정경 (2014). 중국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

- 포'를 넘어. *디아스포라연구*, 8(1), 71-94.
- 신성자, 미칠도칠오통도람 (2012). 재한 몽골 합법·불법 이주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 사회적 지지, 희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4), 435-462.
- 신이린 (2014).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과 지각된 차별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134-158.
- 유효초, 조예희, 최순권 (2018). 재한 중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특성, 조직 특성, 문화차이가 조직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1(4), 479-501.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 이주자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1), 31-60.
-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59-481.
-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 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 (2013).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대처양식 및 문화 정체성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 임성문 (2015).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대처양식 및 문화 정체성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11-534.
- 이정환 (201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25-48.
-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전략의 조절 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 장혁심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진사, 최인수 (202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지능, 전공몰입, 창의성 및 대학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9(11), 65-94.
- 진은영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23-449.
- 최덕경 (2001). 재한 중국조선족의 생활 형태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1-13.
- 최연희, 이현승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

- 협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96-103.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하창순, 선혜연 (2010). 한국대학생과 조선족 및 한족 중국 유학생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비교 연구. *인간이해*, 31(2), 317-328.
- Amit, K.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3), 515-534.
- Baker, F. A., & MacDonald, R. A. (2013). Flow, identity,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ownership during the therapeutic song writing experiences with university students and retirees. *Musicae Scientiae*, 17(2), 131-146.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 Hou, F. (2016). Immigrant acculturation and well-being in Canada.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57(4), 254-264.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id, E. J. R., Okazaki, S., & Saw, A. (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11-226.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im, S. H. (2005).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of acculturation stress among foreign immigrant work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LaFromboise, T., Coleman, H. L.,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412.
- Maldonado, A., Preciado, A., Buchanan, M., Pulvers, K., Romero, D., & D'Anna-Hernandez, K. (2018). Acculturative stress, mental health symptoms, and the role of salivary inflammatory markers among a Latino sample.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24(2), 277-283.
- Miller, M. J., Yang, M., Farrell, J. A., & Lin, L. L. (2011). Racial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4), 489-497.
- Mirage, L.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measuring valence of ethnicity and perception

-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2(2), 49-59.
- Omizo, M. M., Kim, B. S. K., & Abel, N. R. (2008). Asian and European Americancultural values, bicultural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Asi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1), 15-28.
- Park, H. (2021).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es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6(11), 209-215.
- Phinney, J.,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H.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afi, M. (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Sanchez, J. I., & Brock, P. (1996). Outcom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mong Hispanic employees: Is diversity management a luxury or a necess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3), 704-719.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Tineo, P., Lowe, S. R., Reyes-Portillo, J. A., & Fuentes, M. A. (2021). Impa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muslim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religious support, and muslim ident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91(4), 454-463.
- Torres, L., Driscoll, M. W., & Voell, M. (2012).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latino psychological distress: A moderated mediational model.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8(1), 17-25.
- Tran, A. G. T., & Sangalang, C. C. (2016). Personal discriminat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Exploring perceived functional effects of asian american race/ethnicity as a moderator.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2(1), 83-92.
- Wei, M., Liao, K. Y., Chao, R. C., Mallinckrodt, B., Tsai, P., & Boltello-Zamarron, R. (2010). Minority stress, perceived bicultural compet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4), 411-422.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 Williams, D. R. (1997). Race and health: Basic questions, emerging directions. *Annals of Epidemiology*, 7(5), 322-333.

Williams, D. R. (1999).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added effects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1), 173-188.

원고 접수일 : 2023. 03.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8. 01

게재 결정일 : 2023. 10. 23

The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Koreans in Korea: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Self-Efficacy

Huajin Jin

Eunjung Son

Keimyung University / M.D.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Koreans living in Korea. Online surveys, which included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scale, acculturation stress scale, life satisfaction scale, and 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were completed by 320 Chinese Koreans over the age of 17 residing in Korea. Acculturation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Additionally, bicultural self-efficac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Moreover, bicultural self-efficacy moderated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acculturation stress. This study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acculturation stress and bicultural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Koreans living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nese Koreans in Korea,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stress, life satisfaction, bicultural self-efficacy